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면 성장률 3% 가능하다
-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별첨〉 2015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목 차

■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면 성장률 3% 가능하다

Executive Summary	i
1. 2015년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	1
2. 시사점	17
[별첨]	2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경제연구본부 : 이 준 협 연 구 위 원 (2072-6219, sododuk1@hri.co.kr)

□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면 성장률 3% 가능하다

■ 2015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

(3저 공포와 내외수 동반부진 우려)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환율로 수출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한국경제는 내외수 동반부진 및 L자형의 미약한 회복세가 우려된다. GDP갭과 물가갭은 각각 11분기, 12분기 쯤 마이너스 상태며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2015년 물가상승률이 0.7%에 머물면서 외환위기(1999년 0.8%)의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한편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원/엔 환율 및 원/유로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악화되면서 L자형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우려된다.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 3저 공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뒷받침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단기 부양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하는 득보다 실이 더 큰 상황이다.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투자 개선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소비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 확대는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국가채무가 적어 정책여력 또한 충분하다.

(‘1% 함정’에 빠진 민간소비) 최근 민간소비가 1%대 증가에 머무는 가운데, 소득 정체 및 가계부채 누증,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소비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2012~2014년(1.9%→1.9%→1.8%)에 이어 2015년에도 1.9%에 머물러, 1%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소득 정체 및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소비여력이 미약하고, 노후불안, 주거불안, 일자리불안이 겹치면서 소득이 소비지출로 연결되는 힘 또한 약화되고 있다.

(주택·건설경기가 내수 회복의 견인차) 건설수주 호조 및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주택·건설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2015년 4월 12만 488건을 기록,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매매거래지수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2013년 이후 급증한 건설수주가 2015년 하반기에 건설경기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및 인구·가구 감소, 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 경기회복, 미국의 ‘외끌이’로는 한계) 미국의 성장세가 뚜렷하기는 하나 유럽, 일본의 회복세가 약하고 신흥국은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기여도가 큰 중국이 수출 부진 및 구조개혁으로 6%대 성장이 예상되면서 한국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미국도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것이다.

(외화내빈 환율과 불황형 무역흑자) 원/달러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실질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화보다 엔화 및 유로화 가치가 훨씬 더 크게 하락함에 따라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상승할 것이다. 한-일, 한-독일 수출경합도가 상승하고 있어 원/엔 환율 및 원/유로 환율 하락은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유가 하락 및 대내외 경기 부진으로 수출입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흑자는 810억 달러, 경상흑자는 1,01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 시사점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수출까지 급감하면서 성장잠재력마저 훼손될 처지에 놓여 있다. 단기부양책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재정정책)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과 더불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입 추경을 통해 작년과 같은 재정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출 추경을 함께 편성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고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하는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자제해야 한다. 다만 돈이 꼭 필요한 실물 부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제도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외환정책) 환율 급등락 방지를 위한 미세조정이 필요하며, 환변동보험, 수출금융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원화를 엔화에 동조화시켜 원/엔 환율의 추가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 <별첨> 2015년 하반기 수정 경제전망

구 분	2013년 연간	2014년			2015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2.9	3.7	3.0	3.3	2.6 (3.5)	3.3 (3.6)	3.0 (3.6)
민간소비 (%)	1.9	2.2	1.5	1.8	1.7 (3.0)	2.1 (2.6)	1.9 (2.8)
건설투자 (%)	5.5	1.9	0.4	1.0	2.2 (1.6)	4.0 (4.3)	3.1 (3.0)
설비투자 (%)	-0.8	7.5	4.2	5.8	4.7 (4.2)	5.3 (6.0)	5.0 (5.1)
지재투자 (%)	4.4	6.4	2.9	4.6	3.5 (7.3)	6.8 (7.0)	5.2 (7.1)
수출증가율 (%)	2.1	2.4	2.2	2.3	-5.9 (4.1)	-1.6 (4.7)	-3.7 (4.4)
소비자물가 (%)	1.3	1.4	1.2	1.3	0.5 (2.0)	0.9 (1.9)	0.7 (1.9)

주 : 2015년(E)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는 2014년 10월 시점 전망치.

1. 2015년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

① 3저 공포와 내·외수 동반부진 우려

○ (의미) 저성장·저물가·저환율의 3저 현상으로 내·외수 동반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L자형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 지속

-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환율로 수출마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성장잠재력마저 훼손될 우려

○ (내용) 내수와 외수 동반 부진으로 L자형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 예상

- 저성장 : 2014년 4월 세월호 충격으로 소프트패치에 빠진 이후 저성장 지속
 · 2013년 2분기부터 되살아나던 경기가 2014년 4월 세월호 충격으로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소프트패치에 빠짐
 · 대외여건 악화 및 내수 회복 지연으로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11분기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플러스 반전이 힘겨운 상황

- 저물가 : 내수 부진에 유가 급락이 겹치면서 사상 초유의 저물가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2년 11월부터 31개월 째 1%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평균 0.5%에 머물면서 외환위기(1999년 0.8%)의 최저기록을 경신할 전망
 · 내수 회복 지연 및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마이너스 물가갭¹⁾ 상태도 12분기 째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경제성장률 >



자료 :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물가갭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물가갭 = 물가상승률 - 물가 장기추세치.

1) 물가갭 = 소비자물가 상승률 - 물가의 장기 추세치.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면 성장률 3% 가능하다

- **저환율** :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원/엔 환율 및 원/유로 환율 급락으로 수출 경기마저 악화
 -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미약하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우려되며, 신흥국 역시 원자재 가격 약세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는 등 세계 경기 회복 지연
 - 유로존 및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으로 원화 약세보다 유로화 및 엔화 약세가 더 심해 향후 원/유로 및 원/엔 환율 하락세 지속 전망
 - 특히 경합도가 높은 한-일 수출구조를 고려하면, 원/엔 환율 하락으로 엔화 대비 원화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되는 점이 향후 우리나라 수출 부진을 부추길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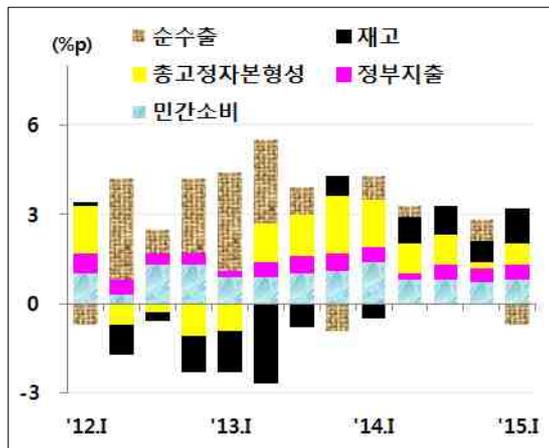
 - **향후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L자형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 전망**
 - 경제성장률은 2015년 1분기 현재 전기대비 0.8%를 기록하며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로 보더라도 2.4%로 하락세 지속²⁾
 - 건설투자가 완만하게 살아나는 반면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회복세가 미약
 - 외수(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될 전망
- (시사점) 저성장·저물가 기조를 끊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미시정책 조합이 강화될 필요

< 환율 및 수출증감률 >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



자료 : 한국은행.

2)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2.4%이나, 재고의 성장기여도가 1.2%p에 달해 이를 제외할 경우 1.2%에 불과.

② 경기 부양, 재정정책이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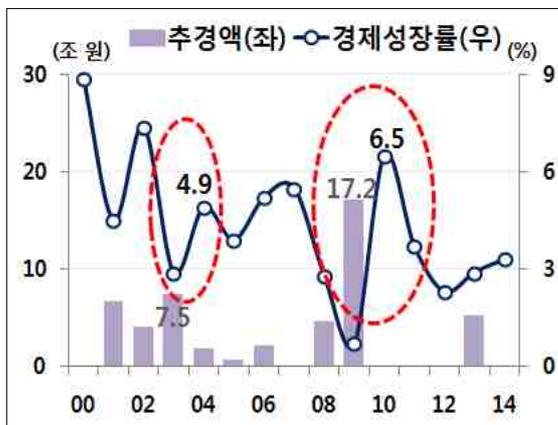
○ (의미) 경기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며,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

-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증하고 성장잠재력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꼭 필요한 시기³⁾
- 통상적으로 재정정책은 경기침체 극복에 더 효과적이고, 통화정책은 경기과열 억제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내용) 추경을 포함한 재정 확대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직접적인 반면, 기준금리 인하는 득보다 실이 더 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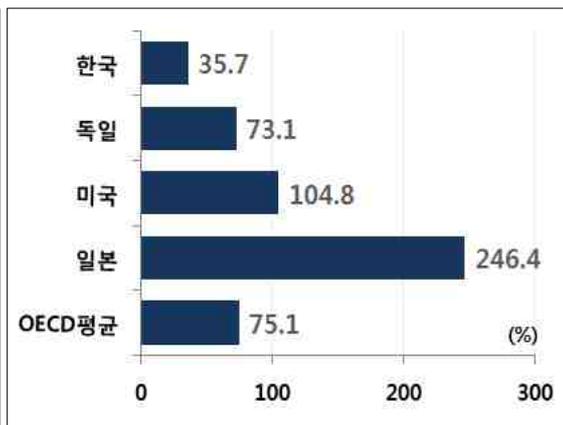
-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특히 경기침체기를 벗어나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냄
 - 2003년 카드사태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경기 회복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 추정한 재정지출승수는 0.498⁴⁾로서, 경기 대응책으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 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추경규모 및 경제성장률 >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세출 추경 기준)

<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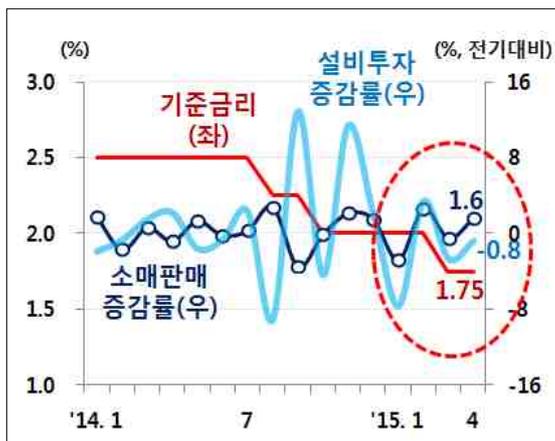
자료 : IMF. (2014년 기준)

3)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1989~1997년) 7.8%에서 외환위기 이후(1998~2007년) 4.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2015년) 3.5%로 하락(현대경제연구원, 2015.1월, “5만 달러 국가의 조건”, 경제주평15-1).
 4) 현대경제연구원(2013.3월),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 현안과 과제 13-17.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면 성장률 3%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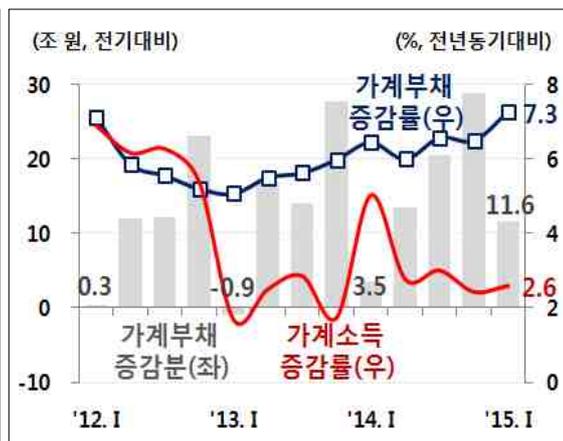
-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에 35.7%로서,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 75.1%보다 현저히 낮아 재정정책 여력 충분
 -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이 만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회성으로 대규모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투자 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소비를 제약하는 형국
- 2014년 8월과 10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초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통화승수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등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⁵⁾
 - 2015년 1분기 가계부채 및 가계소득 증가율은 각각 7.3%, 2.6%로, 부채가 소득보다 세 배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해 소비심리 악화 요인으로 작용
- (시사점)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입 추경을 통해 작년 같은 재정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출 추경을 함께 편성해 성장률을 높여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⁶⁾

< 기준금리 및 소비·투자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가계소득 및 가계부채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가계소득은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5) 현대경제연구원(2015.2월), “통화승수 하락의 원인과 시사점”, 경제주평 15-08.

6) 추가경정예산이란 국가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추가 변경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추경,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추경이 있음.

③ '1% 함정'에 빠진 민간소비

○ (의미) 민간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지속 우려

- 민간소비는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과급영향이 다른 부문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 침체는 곧 한국 경제 침체로 직결
- 소비심리 악화, 가계부채 누증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의 장기 부진 우려

○ (내용)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이 '1% 함정'에 빠진 가운데, 실질임금 증가세 둔화와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소비 회복세 지연 우려

- '1% 함정'에 빠진 민간소비 : 2012~2014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1.9%, 1.9%, 1.8%로, GDP 증가율이 2.3%, 2.9%, 3.3%로 회복된 것과 대조적
-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1%p 지속 밀돌면서 경기 회복세를 제약
- 특히 2014년 2분기 세월호 충격 이후부터 1%대에 머물러 있으며, 2015년 1분기에는 경제성장률보다 0.9%p 낮은 1.5%를 기록
- 소득 정체 : 국민총소득보다 가계소득이 천천히 증가함에 따라, GDP 증가율이 2~3%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에 머뭇
- 2003~2014년 기간 가계소득(명목기준)은 연평균 5.3% 증가하여 GNI 증가율 5.8%보다 낮음
- 이에 따라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2003년 65.1%에서 2014년 61.9%로 큰 폭으로 하락

< 민간소비 및 GDP 증가율 격차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 가계소득과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주 : 명목기준.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면 성장률 3% 가능하다

- **가처분소득⁷⁾ 정체** : 세금 및 공적연금·보험이 증가하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여력 약화
 - 가계소득이 2003~2014년에 4.6%(통계청 '가계동향' 기준) 증가하는 동안 세금 및 공적연금·보험은 5.5%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이 감소
 - 가계부채가 2003년 465조원에서 2014년 1,089조원으로 급증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4%에서 138.0%로 상승
 - 세금 및 공적연금보험,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83.0%에서 81.3%로 하락

 - **평균소비성향 하락** : 노후불안, 주거불안, 일자리불안 등으로 소득이 소비지출로 연결되는 힘 약화
 -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77.9%에서 2014년 72.9%까지 급락 (2인 이상 전국 가구 기준)
 -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주된 요인은 노후불안과 주거불안, 일자리불안⁸⁾
- (시사점) '1% 함정'에 빠진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는 물론 소득이 소비지출로 연결되는 힘을 강화
-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계소득을 늘리고,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등을 포함하는 추경을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
 - 또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주거안정대책 마련 등으로 평균소비성향 제고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주 : 가계신용 기준.

< 가계 평균소비성향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전국 2인 이상, 명목기준.

7) 가처분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공적연금보험, 이자비용 등을 제외한 것으로, 가처분소득으로 소비지출을 하거나 저축을 할 수 있음.

8) 현대경제연구원(2013.10월), “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과 시사점”, 경제주평 13-44.

④ 주택·건설경기가 내수 회복의 견인차

○ (의미) 2015년 하반기 주택·건설경기의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주택·건설 산업은 경제성장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크므로, 주택·건설경기 회복은 타 산업 경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내용) 최근 주택·건설시장에서는 주택매매 및 거래량의 지표가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건축수주 확대 및 미분양 주택 감소 등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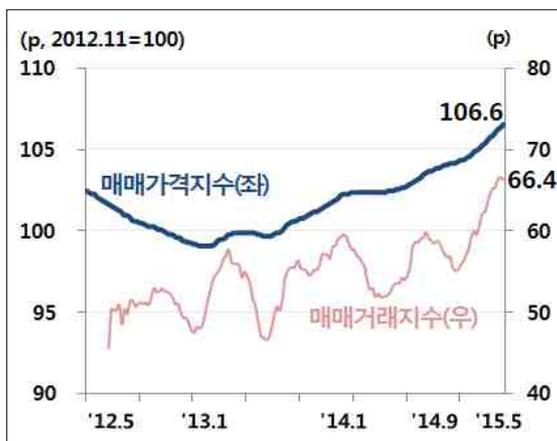
- 주택경기 회복세 확대 :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롯해 매매거래지수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거래지수 모두 2014년 9.1대책 이후 상승세가 지속
- 특히 최근 정부의 금리인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지속적인 주택경기 부양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주택거래량 증가세 확대 : 주택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활황세

- 2015년 4월 기준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12만 488건을 기록,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4월 거래량 중 최대치를 기록
- 한편 미분양 주택이 2009년 4월 16.4만 호에서 2015년 4월 2.8만 호로 크게 줄어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

< 아파트 매매가격 및 매매거래지수 >



자료 : 한국감정원.
주 : 매매거래지수=100+“활발함비중”+“한산함비중”

< 주택거래량 및 미분양 주택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주 : 각 연도별 4월 기준.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면 성장률 3% 가능하다

- 건설경기 회복 : 선행지표 호조세 지속 등으로 건설경기 회복세 확대 전망
 - 2013년 하반기 이후 반등한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의 증가세 지속으로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
 - 또한 민간 주택수주의 약 30~50%를 차지하는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등이 건설경기 회복세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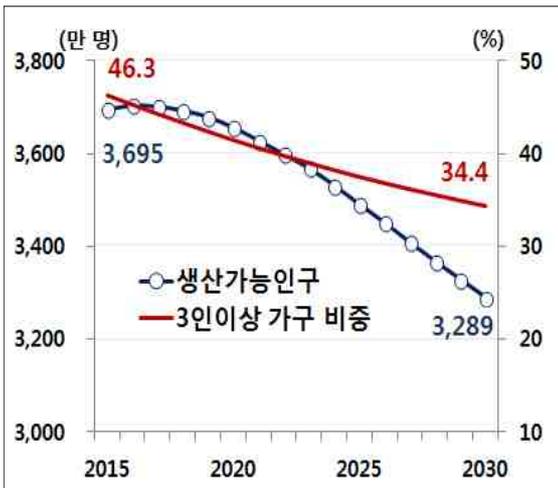
- 단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으로 주택·건설경기의 장기 침체 우려감 상존
 - 2014년 4분기 기준 예금은행 기준 가계대출 금액은 520조원이며, 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70.4%에 달해, 가계부채 누증 우려
 - 한편 2015년 예정된 아파트 분양 규모는 34만 가구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입주 시기인 2~3년 후에는 분양 급증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도 존재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 기반인 3인 이상 가구의 비중 감소,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감소 등이 주택·건설경기 주요 침체 요인으로 존재⁹⁾

- (시사점) 주택·건설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주택 담보대출 실시, 규제 완화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

< 건설투자 및 건설수주액 증감률 >



< 2015~2030 장래 인구 및 가구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9)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및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3인 이상 가구 비중은 2015년 46.3%에서 2030년 34.4%로 줄어들 전망이며, 생산 가능 인구는 동기간 3천 700만명에서 3천 300만 명으로 감소될 전망.

⑤ 미진한 투자심리와 설비·지재 투자

○ (의미)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설비·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이 회복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됨

- 설비·지재투자는 우리나라 GDP의 15%에 그치지만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투자라는 의미에서 경제성장의 씨앗과도 같음
-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GDP에 대한 설비·지재투자 기여도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내용) 기업의 투자심리가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투자증가율도 최근 급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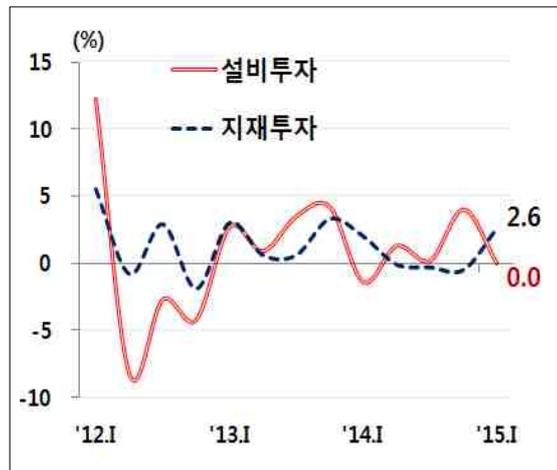
- 투자 회복세 지연 : 우리나라 설비투자 및 지재투자 증가율은 2012년 1분기 이후 그렇다할 회복세를 보이지 못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큰 회복 없이 최근까지 등락을 반복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도 지난 2015년 1분기 기저효과로 인해 2.6% 증가하였지만 추세적인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설비·지재 투자의 성장기여도 >



자료 : 한국은행.

< 설비·지재투자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기대비.

- 기업심리 개선 지연 및 설비투자 필요성 감소 : 기업의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BSI지수가 회복기미를 보지 못하면서 설비투자 필요성도 지속 감소
 - BSI 업황실적지수는 2012년 이후 크게 하락한 뒤 회복되지 못함
 -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생산능력에 미치지 못하면서 설비투자조정압력도 장기간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등 설비투자의 필요성이 감소
 - 주력산업 투자 부진 : 과거 투자가 크게 증가했던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순자본스톡 증가율이 최근 들어 급격히 하락
 - 70년대 순자본스톡이 급증했던 화학, 기계, 운송장비 등 주력산업의 자본스톡 증가율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5% 내외로 급락
 - 더욱이, 신규 투자를 이끌만한 새로운 성장 산업이 보이지 않는 상황
- (시사점)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
- 양적인 투자를 지양하고 투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적극 발굴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고부가가치의 신수종 산업 발전 기회를 적극 모색

<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투자심리 >



자료 : 한국은행.
주 : 업황실적은 매3개월 평균 기준임.

< 주요 산업별 순자본스톡 증가율 >

구분	70~79	80~89	90~99	00~12
화학	23.5	15.2	8.9	4.4
1차금속	47.9	9.1	8.9	2.5
기계	40.6	14.0	7.0	6.0
전기전자	34.5	23.2	9.8	10.5
운송장비	33.7	19.3	11.9	5.6
운수보관	27.2	10.1	8.9	5.6
부동산임대	14.3	8.9	12.2	4.2
공공국방	16.0	10.7	9.5	5.5

자료 : 한국은행.
주 : 1) 2010년 연쇄가격, 연말기준으로 산정.
2) 기간별 기하평균으로 계산.

⑥ 세계 경기회복, 미국의 '외끌이' 구조로는 한계

○ (의미) 2015년 세계 경기회복은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견인하기에는 역부족

- 2015년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회복세는 미약하고, 신흥국은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미국이 세계 경기회복을 이끌기에는 역부족

- 선진국 : 2015년에 미국만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거나 유럽과 일본 등은 1%대 성장률에 그칠 전망
- 개도국 : 2015년에 중국 성장률은 6%대로 하락할 우려가 있고, 브라질과 러시아는 경기 후퇴가 우려됨

○ (내용) 세계 경제에 기여도가 큰 중국 경제의 둔화에 더해 미국 성장세 지속의 한계로 세계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 우려

-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가 하락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유로존과 일본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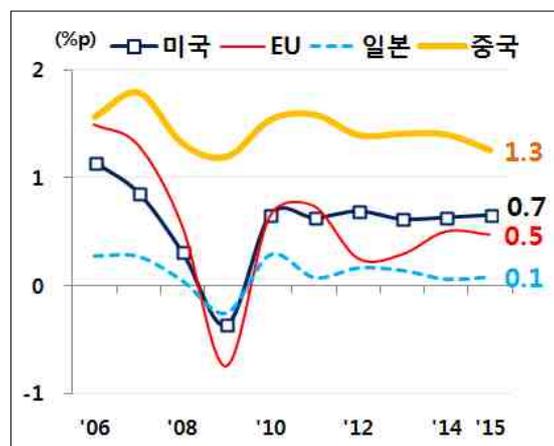
- 세계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이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2015년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역시 하락할 우려
- 장기간 저성장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유로존과 일본의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다 합쳐도 미국의 기여도에 못미치는 0.6%p에 그칠 전망

< 주요국 경제성장률 >

	2012	2013	2014	2015(E)
세계	3.4	3.4	3.4	3.5
미국	2.3	2.2	2.4	2.5
유로존	△0.7	△0.5	0.9	1.5
일본	1.5	1.6	△0.1	1.0
중국	7.7	7.8	7.4	6.8
ASEAN-5	6.2	5.2	4.6	5.2

자료 : IMF(WEO, 2015년 4월 등).

< 세계성장률에 대한 주요국 기여도 추이 >



자료 : IMF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구매력지수(PPP) 기준.

- 미국조차도 달러 강세로 수출이 부진하고 성장세 지속에 한계 우려
 - 일본과 유로존의 양적완화로 엔화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화지수는 2015년 1분기에 2003년(3분기 93.2p) 이후 최고치인 89.4p까지 상승
 -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고조 및 달러 강세 지속이 예상 되면 미국 기업의 외환 수입 감소, 수익 증가 둔화 예상
 - 달러 강세로 미국의 수출상품 가격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미국의 수출 부진 우려
 -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큰 중국의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성장의 주력 엔진이 예전만큼 작동 못함
 - 중국은 과잉 투자 해소 지연에 따른 고정자산투자 증감률이 하락하고, 세계 경기 회복세 미약으로 수출증감률 역시 하락
 - 향후에도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및 수요 압력 저하 등으로 인한 물가 하락, 제조업 생산 과잉 설비 등의 경기 하방 요인이 작용하여 성장률 둔화가 예상됨
- (시사점)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 수출경기 둔화에 대응
-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R&D 투자를 지속하고 수입 의존적 수출 구조를 개선

< 미국 주요 경제지표 >



자료 : 미국 연준, 미국 상무부.
 주 : 경제성장률(전기대비 연율),
 수출증감률(전년동기대비).

< 중국 주요 경제지표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해관총서.
 주 : 전기대비 증감률.

⑦ 외화내빈 환율

○ (의미)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 원화 가치가 상승해 수출 여건이 오히려 악화

- 2015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명목상 원화 가치가 하락하나, 주요국 통화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해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오히려 상승

○ (내용) 원/달러 명목 환율이 상승하지만 주요 경쟁국 통화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하며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오히려 상승해 국내 수출경쟁력 악화 우려

- 원/달러 환율 추이 :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2015년 상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상승

· 최근 미국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둔화되었으나, 하반기 중에도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지속되며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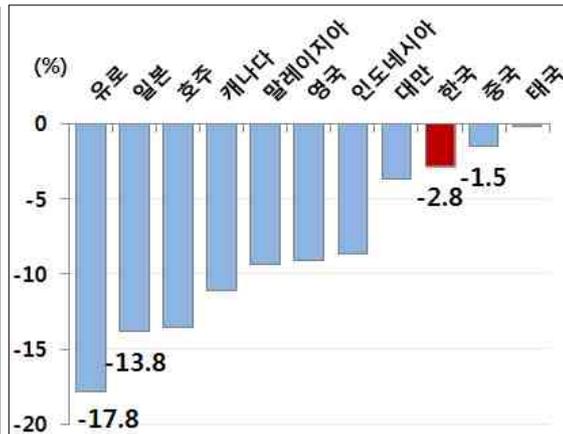
· 다만,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원화 실질실효환율 및 원/달러 환율> < 주요국 통화의 달러 대비 절하율 >



자료 : 한국은행, BIS.

주 : 1)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환율 기준.
2) 실질실효환율은 상승할수록 고평가.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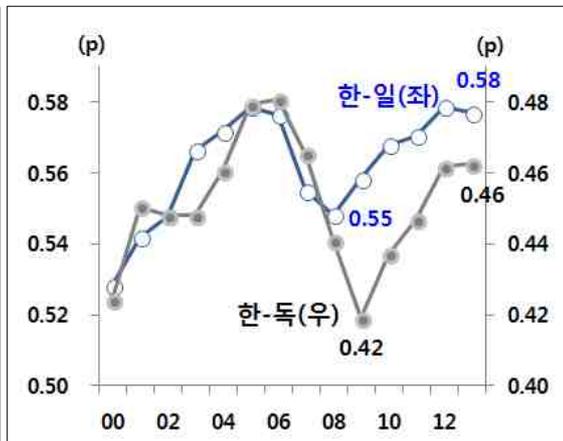
주 : 절하율은 2014년 1분기 평균 대비 2015년 1분기 평균 환율 기준.

- **실질 원화 가치** :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요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화의 상대적 가치는 오히려 상승
 - 2015년 1분기 평균 명목 원/달러 환율은 1,099원으로 전년 동기간 평균 대비 2.8% 절하되었으나, 엔화와 유로화가 동기간 각각 13.8%, 17.8% 절하되며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동기간 오히려 5.4% 절상
 - 일본 및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화의 실질 가치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 실질 원화 가치 상승세가 지속되며 국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가 지속
 - 달러화, 엔화, 유로화 대비 원화 가치는 과거 장기평균 대비 고평가가 지속되면서 미국, 일본, 유로존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지속
 - 중국의 경우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는 과거 장기평균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나 중국 성장 둔화로 수입 수요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
 -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 독일 등과 수출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지속

- (시사점)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 급변동을 방지하고 가격 외적인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지속

<원화와 주요통화 실질실효환율의 괴리율> <한-일 및 한-독 간 수출경합도 추이>



자료 : OECD.
 주 : 실질실효환율 장기균형 대비 괴리율
 $= (\text{실질실효환율} / \text{장기균형} - 1) \times 100$.

자료 : UN Comtrade.
 주 : 1) HS코드 4자리 기준.
 2) 수출경합도가 1에 가까울수록 경합 심함.

⑧ 불황형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 (의미) 내수 부진 및 유가하락 등으로 불황형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할 전망

- 2015년 수출입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할 전망

○ (내용) 유가 하락 및 대내외 경기 부진으로 수출입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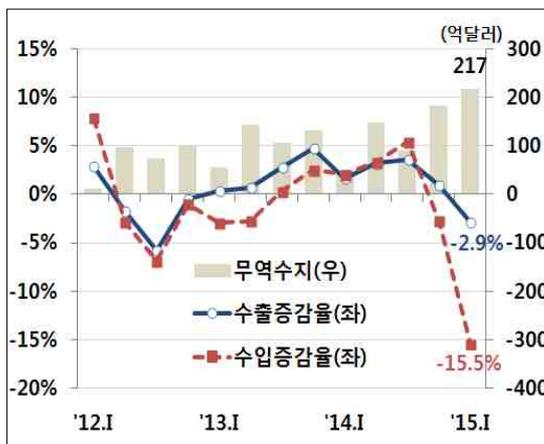
- 수출입 : 2015년 1분기 수출입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1분기 무역수지 흑자폭이 역대 최대

· 2015년 1분기 수출 -2.9%, 수입 -15.5%, 무역수지 217억 달러, 경상수지 235억 달러(전년동기대비)

- 수출입 물가 : 유가 하락이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끼침에 따라, 수출물가보다 수입물가가 더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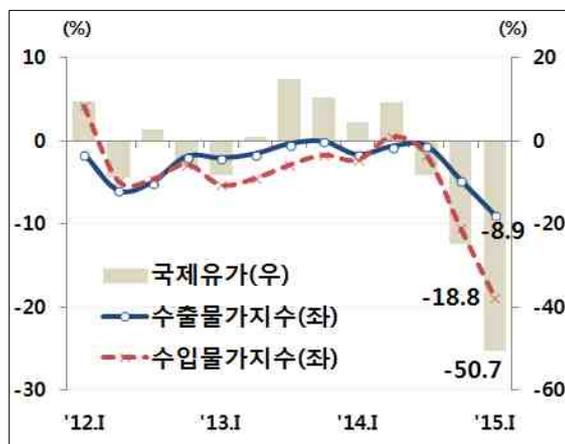
· 국제 유가가 2014년 3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5년 1분기 수출물가지수는 -8.9%, 수입물가지수는 -18.8% 급락(전년동기대비, 계약통화기준)

<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국제 유가 및 수출입물가지수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주 : 국제유가는 WTI 기준.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면 성장률 3%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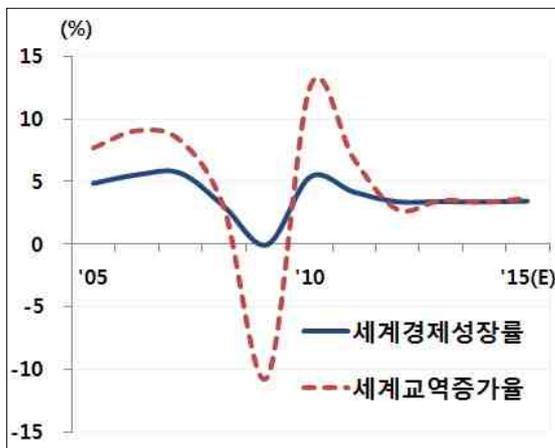
- 수출 부진 : 수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효 수요 부족으로 수출 견인 효과가 미약
 -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함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4년 3.4%에 이어 2015년에도 3% 중반에 그칠 전망
 - 세계 경제의 미약한 회복세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으로 세계 무역 증가율은 2014년 3.4%에서 2015년 3.7%로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 수입 부진 : 가계 소비 여력 약화, 미진한 투자 심리 등 내수 부진으로 수입 견인 효과도 제약
 - 가계 부채 급증,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 소비 여력이 지속적 약화
 - 저금리 및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등으로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경기회복세 지연에 따른 기업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세는 둔화

-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전망 :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여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달성할 전망
 - 2015년 수출 -3.7%, 수입 -10.5%, 무역수지 810억 달러, 경상수지 1,010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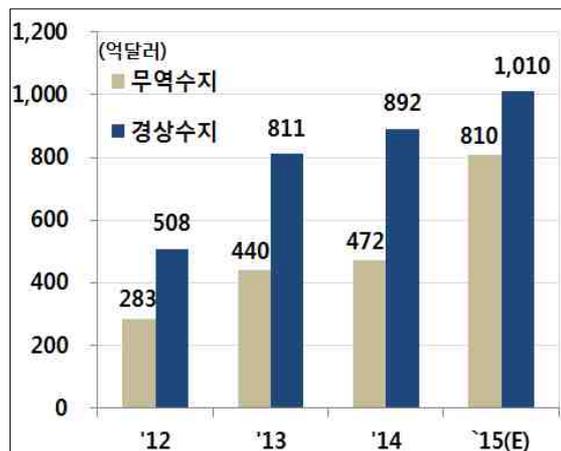
○ (시사점) 제품의 질적 향상으로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가계 소비 여력 강화, 투자 환경 개선 등 내수 경기 활성화 노력을 병행

<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증가율 >



자료 : IMF(WEO, 2015년 4월).

<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주 : 2015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2. 시사점

○ 3%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

-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수출까지 급감하면서 성장 잠재력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필요

○ (재정정책)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확장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 실현

- 세입 추경뿐만 아니라 세출 추경을 편성할 경우 경제성장률 3% 가능
 - 2012~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만큼, 세입 추경을 통해 2014년 4분기와 같은 재정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더불어 세출 추경을 편성, 기존 예산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집행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고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해야 할 것임

- 특히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등 민간소비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 민간소비가 '1% 함정'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민간소비 제고 효과가 큰 노동 및 보육·가족·여성 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
 -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지급 등 소비 진작용 보조금 확대를 위한 세출 추경 방식도 고려

○ (통화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견지하여 확장적 재정정책과 정책 공조를 이루되,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득보다 실이 더 큰 만큼 자제

-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저물가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견지
 - 자금을 꼭 필요로 하는 실물 부문에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방식을 모색

-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득보다 실이 더 큰 만큼 자제

- 통화승수가 낮은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소비 및 투자 개선 효과는 미약
- 반면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면 빠른 증가세의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어 소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외환정책) 환율 급등락 방지를 위한 미세조정이 필요하며, 원/엔 환율 추가 하락을 방지할 필요
 - 환율에 대한 기대가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미세조정이 필요하며,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
 -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그렉시트 및 브렉시트, 유가변동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만큼, 국내 금융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환율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미세조정 필요
 -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 확대 및 환리스크 관리 지원 강화
 - 원화를 엔화에 동조화함으로써 원/엔 환율이 급락하지 않도록 조치
 - 한-일간 수출경합도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원화를 엔화에 동조화함으로써 원/엔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외환시장 안정화대책 마련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엔저 현상의 장기화에 대비
- (다양한 미시 정책) 소비와 투자 진작, 청년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미시 정책 마련
 - 소비 진작을 위한 소득계층별, 법·제도 부문별 정책을 적극 실시
 - 저소득층 : 안정적인 근로소득 여건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비롯해, 바우처 지급 등 최소한의 생계를 보전해주는 정책 필요
 - 고소득층 : 소비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이 국내에서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고소득층 소비 활성화 여건 마련
 - 노년층 :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가구를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공적이전소득이 제공되는 소득재분배 정책 확대
 -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법·제도 측면의 소비 활성화 대책 마련
 - 투자 진작을 위한 기술금융 제도, 투자 유망 산업 입지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제도 등의 정책 마련
 - 유망기술, 특히, 혁신적 아이디어 등 지식자산을 보유한 기업 및 개인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제도 활성화

- IT, BT, CT 등 융복합 산업과 첨단·유망서비스 산업에 대한 입지환경 조성
-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제도, 세제, 인력 등에서의 윈스톱 가이드 마련 필요

-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적극 모색
 - 이중구조화 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일-학업 병행을 통해 취업준비 기간을 단축
 -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청년고용 미스매치를 완화
 - 청년층이 선호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고기술·신지식 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충

- (성장잠재력 제고) 경제 구조 개혁 및 체질 개선 등 성장잠재력 제고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R&D투자 확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투자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적자원 약화에 대비하여 여성·청년·고령층 등 취업애로계층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하고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력과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이 준 협 경제동향분석실장 (2072-6219, sododuk1@hri.co.kr)
홍 준 표 연구 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이 용 화 선임 연구 원 (2072-6222, yhlee@hri.co.kr)
조 규 립 선임 연구 원 (2072-6240, jogyurim@hri.co.kr)
백 다 미 선임 연구 원 (2072-6239, dm100@hri.co.kr)
천 용 찬 연구 원 (2072-6274, junius73@hri.co.kr)

<별첨> 2015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1. 2015년 대외 경제 여건

① 세계 경기 : 미약한 경기 회복세 지속

○ (현황) 2015년 상반기에 선진국은 미약한 회복세, 신흥개도국은 성장세 둔화

- 미국은 회복세 지속, 일본과 유럽은 미약한 회복세, 중국 등 신흥개도국은 성장세 둔화
 - 미국 : 생산과 소비, 고용이 개선되면서 견조한 경기 회복세를 보임. 다만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 감소는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
 - 일본 :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회복 지연 및 물가상승세 둔화 등 경기 회복세 미약
 - 유로존 :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 개선 및 양적완화 시행 등의 요인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
 - 중국 :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기 하방 리스크 상존

< 주요국 경제성장률 >

(%)

구분	2013년	2014년					연간	2015년 1/4
		1/4	2/4	3/4	4/4			
세계	3.4	-	-	-	-	3.4	-	
선진국	1.4	-	-	-	-	1.8	-	
미국	2.2	-2.1	4.6	5.0	2.2	2.4	-0.7	
일본	1.6	1.2	-1.8	-0.5	0.3	-0.1	0.6	
유로존	-0.5	0.3	0.1	0.2	0.3	0.9	0.4	
신흥개도국	5.0	-	-	-	-	4.6	-	
중국	7.8	7.4	7.5	7.3	7.3	7.4	7.0	
인도	6.9	6.7	6.5	8.4	6.6	7.2	7.5	
브라질	2.7	0.7	-1.4	0.2	0.3	0.1	-0.2	
러시아	1.3	0.6	0.7	0.9	0.4	0.6	-1.9	
ASEAN-5	5.2	-	-	-	-	4.6	-	

자료 : 1) 연간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년 4월).

2) 분기 (미국: 상무부 ; 일본: 내각부 ; 유로존: Eurostat ; 중국: 국가통계국 ; 인도: 중앙통계국 ; 브라질: 중앙통계국 ; 러시아: 중앙통계국).

주 : 1) 분기성장률 (미국: 전기대비연율 ; 일본: 전기대비 ; 유로존: 전기대비 ; 중국: 전년동기대비 ; 인도: 전년동기대비 ; 브라질: 전기대비 ; 러시아: 전년동기대비).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 (전망) 2015년 하반기에는 미국을 제외하고 미약한 경기 회복세 지속

-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5년 3% 초중반으로 2014년 3.4%와 비슷할 전망. 선진국은 완만하게 회복하나 신흥개도국은 둔화
- 미국 :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용,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일본 :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개선 및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
- 유로존 :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약세 지속에 따르는 민간소비 회복과 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출 개선, 점진적인 고용 개선 등의 요인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 전망
- 중국 : 정부의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
- 신흥개도국 :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으로 인한 수출 둔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인한 금융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IMF와 OECD의 2015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동 >

(%)

구분	2015년				
	OECD		IMF		
	2014년 11월	2015년 6월	2014년 10월	2015년 1월	2015년 4월 이후
세계	3.7	3.1	3.8	3.5	3.5
선진국	-	-	2.3	2.4	2.4
미국	3.1	2.0	3.1	3.6	2.5
일본	0.8	0.7	0.8	0.6	1.0
유로존	1.1	1.4	1.3	1.2	1.5
신흥개도국	-	-	5.0	4.3	4.3
중국	7.1	6.8	7.1	6.8	6.8
인도	6.4	6.9	6.4	6.3	7.5
브라질	1.5	-0.8	1.4	0.3	-1.0
러시아	0.0	-3.1	0.5	-3.0	-3.8
ASEAN-5	-	-	5.4	5.2	5.2

자료 :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4년 10월 : 2015년 1월 : 4월 등).
 OECD(「Economic Outlook」, 2014년 11월 : 2015년 6월).

② 세계 교역 : 미약한 회복세 지속

○ (현황) 2015년 상반기에 세계 교역은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 등으로 미약한 증가세 지속

- 달러 강세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한 미국의 수출입 부진, 일본과 유럽의 미약한 회복세, 중국의 수출입 부진 등으로 세계 교역 증가율은 3% 초반을 기록
- 자원 수출 신흥국의 경우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출이 위축되고 교역조건 및 소득여건 악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수출입 감소

○ (전망) 2015년 하반기에 세계 교역은 미국 경기 확장에도 불구하고 기타 선진국 및 신흥개도국의 미약한 성장세 등으로 미약한 회복세 지속

- 선진국 : 미국 이외에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여 선진국의 2015년 하반기 수출입은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미국도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진행된다면 미국의 경기 회복이 글로벌 교역 증가에 대한 기여는 낮을 것으로 전망
- 신흥개도국 : 세계 경제의 미약한 회복세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으로 신흥개도국의 2015년 하반기 수출입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對선진국 수출 물량이 증가해도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으로 수출액 증가는 미약할 전망
 - 또한 일부 선진국의 셰일오일·가스 생산 지속 및 제조업 혁명 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 약세 지속 및 수입 수요 둔화 등은 신흥개도국의 수출 제약 요인

< 세계 수출입 전망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E)			
			2014년 10월	2015년 1월	2015년 4월	
세계 무역 증가율	3.5	3.4	5.0	3.8	3.7	
수출	선진국	3.1	3.3	4.5	-	3.2
	신흥개도국	4.6	3.4	5.8	-	5.3
수입	선진국	2.1	3.3	4.3	3.7	3.3
	신흥개도국	5.5	3.7	6.1	3.2	3.5

자료 :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4년 10월 : 2015년 1월 : 4월).

주 : 1) 상품 및 재화의 수출입, 2) 물량 기준.

③ 국제 원자재 : 약세 지속

○ (현황) 2015년 상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은 세계경기 회복 미약, 공급 과잉으로 인한 재고량 증가 등으로 낮은 수준 지속

- 원유 : 세계경기의 미약한 회복세, OPEC 감산합의 실패 등에 따른 원유 과잉공급,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저유가 지속
· 다만 중동 및 아프리카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존재
- 기타 원자재 : 원유 가격 하락에 따른 동반 하락, 중국 등 주요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세 둔화 등으로 하락세 지속

○ (전망) 2015년 하반기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은 세계경기의 미약한 회복세 등으로 약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

- 원유 : 세계경기의 미약한 회복세, 달러화 강세, 셰일오일 등 비전통자원의 생산 증가 등에 따라 국제유가는 60달러 내외로 약세가 지속될 전망
- 기타 원자재 : 하반기에도 기타 원자재 가격의 완만한 하락세가 전망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및 기상 이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도 상존

< 국제 유가 현황 및 전망 >

(단위 : 달러/배럴)

구분		2013	2014			2015		
유종	전망기관		상반	하반	연간	상반(E)	하반(E)	연간(E)
두바이	CERA	105.6	105.3	87.9	96.6	46.1	51.9	49.0
	EIA	97.9	101.1	86.6	93.8	52.0	56.5	54.3
WTI	PIRA	97.9	100.9	87.2	94.0	46.7	53.8	50.3

자료 : CERA(2015.2.9), EIA(2015.5.19), PIRA(2015.2.24).

주 : 1) 2015년부터 추정치.

2) CERA(미국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EIA(미국 에너지정보청), PIRA(석유산업연구소).

< 국제원자재 가격지수 현황 및 전망 >

(단위 : p, %)

구분	2013	2014	2015(E)
국제원자재	102 (-7.3)	97 (-4.6)	87 (-10.2)
농산물	106 (-7.0)	103 (-3.4)	93 (-9.3)
금속	91 (-5.2)	85 (-6.6)	73 (-13.4)
귀금속	115 (-16.7)	101 (-12.2)	98 (-3.5)

자료 : World Bank(2015.4.22).

주 : 1) 국제원자재 지수(2010년 = 100p)는 원유 미포함.

2) 금속에는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납, 니켈, 주석, 아연 등이 포함됨.

④ 주요국 환율 : 글로벌 달러화 강세 지속

○ (현황) 2015년 상반기에 달러화는 강세, 유로화 및 엔화는 약세

- 달러화 : 미국의 강한 회복세 및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강세 지속
- 기타 주요국 통화 : 유로화는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등으로 약세 지속, 엔화는 일본 경기 회복 지연,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약세 지속

○ (전망) 2015년 하반기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의 불확실성 증대로 달러화 강세 추이가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달러화 : 미국 경기 확장 및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달러화 강세 지속되고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 유로화 : 경기 부양을 위한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지속으로 하반기에도 약세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엔화 : 엔화 약세 기조는 지속될 것이나 일본 정부의 국채 발행 부담에 따른 통화완화 속도가 둔화되면서 엔/달러 환율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
- 위안화 : 위안화 국제화,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의 상반된 통화정책 기조로 달러화 대비 강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 주요국 환율 전망 >

구분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3개월후	6개월후	9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9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9개월후
평균	1.04	1.02	1.01	122.6	124.0	124.2	6.23	6.25	6.25
최고	1.09	1.10	1.14	127.0	128.0	128.0	6.42	6.40	6.42
최저	1.00	0.98	0.95	120.0	120.0	118.0	6.12	6.09	6.10

자료 : 국제금융센터(2015.05.29).
 주 : 14개 주요 국제투자은행의 전망치.

2. 2015년 국내 경제 전망

① 2015년 국내 경제 전망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9	3.7	3.0	3.3	2.6 (3.5)	3.3 (3.6)	3.0 (3.6)
	민간소비 (%)	1.9	2.2	1.5	1.8	1.7 (3.0)	2.1 (2.6)	1.9 (2.8)
	건설투자 (%)	5.5	1.9	0.4	1.0	2.2 (1.6)	4.0 (4.3)	3.1 (3.0)
	설비투자 (%)	-0.8	7.5	4.2	5.8	4.7 (4.2)	5.3 (6.0)	5.0 (5.1)
	지재투자 (%)	4.4	6.4	2.9	4.6	3.5 (7.3)	6.8 (7.0)	5.2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1	394	498	892	510 (320)	500 (360)	1,01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440	199	273	472	445 (192)	365 (234)	810 (426)
	수출(억 달러)	5,596	2,832	2,895	5,727	2,665	2,850	5,515
	증가율 (%)	2.1	2.4	2.2	2.3	-5.9 (4.1)	-1.6 (4.7)	-3.7 (4.4)
	수입(억 달러)	5,156	2,633	2,622	5,255	2,220	2,485	4,705
	증가율 (%)	-0.8	2.7	1.2	1.9	-15.7 (4.8)	-5.2 (5.0)	-10.5 (4.9)
소비자물가 (평균, %)	1.3	1.4	1.2	1.3	0.5 (2.0)	0.9 (1.9)	0.7 (1.9)	
15~64세 고용률 (%)	64.4	65.0	65.7	65.3	65.3 (66.0)	65.6 (66.5)	65.5 (66.2)	

주 : 2015년 경제성장률은 세출 추경을 전제로 산출한 전망치임.

② 소비 : 하반기에도 회복세 미약

○ (현황) 2015년 상반기에 민간소비는 소득 정체 및 미약한 소비심리, 가계 부채 급증 등으로 회복세 지연

-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세 둔화 및 낮은 실질임금 상승률로 가계 소득 증가세 미약하고, 가계부채 급증 및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회복세 지연

< 민간소비 및 주요 변수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천명, p)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연간	1/4	3월	4월
민간소비(국민계정)	1.9	2.6 (0.4)	1.7 (-0.4)	1.5 (0.8)	1.4 (0.5)	1.8	1.5 (0.6)	-	-
소매판매	0.7	2.4 (0.2)	0.8 (-0.2)	1.5 (1.3)	1.9 (0.4)	1.7	1.6 (0.5)	2.7 (-0.5)	4.9 (1.6)
실질임금	2.5	1.8	0.2	0.1	3.0	1.3	2.5	3.6	-
가계부채	6.0	6.4	6.0	6.6	6.5	6.5	7.3	-	-
가계대출금리	4.35	4.10	4.00	3.82	3.58	3.87	3.43	3.21	2.96
취업자증가수	386	729	464	517	421	533	354	338	216
소비자심리지수	106	108	107	107	101	101	101	101	10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고용노동부.

주 : ()안은 전기 대비 증감률.

○ (전망) 2015년 하반기에도 소득 정체, 소비심리 부진 등으로 회복세 미약

- 하반기 민간소비는 고용 증가 등으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소비심리 부진과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부채 증가 등으로 회복세 미약
- 민간소비는 상반기 1.7%, 하반기 2.1% 증가하면서 연간 1.9% 증가 예상

< 민간소비 추이 및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3년 연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1.9	2.2	1.5	1.8	1.7 (3.0)	2.1 (2.6)	1.9 (2.8)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5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안은 2014년 10월 전망치.

③ 건설투자 : 하반기에 회복세 확대

○ (현황) 2015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경기 개선 등으로 회복세 개선

- 건설투자는 상반기에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경기 개선, 정부의 SOC 재정 확대, 미분양주택 축소 등으로 회복세 개선

< 건설투자 및 주요 변수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연간	1/4	3월	4월
건설투자	5.5	4.1 (5.3)	0.2 (0.5)	2.3 (0.9)	-1.5 (-7.8)	1.0	0.6 (7.4)	-	-
건설기성(불변)	10.2	6.6 (1.0)	0.1 (-0.4)	-1.9 (-2.7)	-5.9 (-3.9)	-0.8	-1.9 (4.9)	-1.5 (-6.9)	-8.6 (-2.6)
건설수주(경상)	-12.9	15.5 (-5.1)	25.4 (12.4)	42.8 (22.0)	-7.5 (-29.0)	15.3	54.8 (50.3)	147.9 (72.7)	18.3 (25.4)
건축허가면적	-7.3	18.4 (-20.9)	21.6 (21.7)	14.7 (-1.5)	-4.6 (0.6)	11.2	11.0 (-8.0)	28.3 (53.6)	20.3 (7.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주 : ()안은 전기대비 증감률.

○ (전망) 2015년 하반기에도 건설수주 개선,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 등으로 회복세 확대

- 하반기 건설투자는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주요 대형공사 발주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 확대 전망
 - 특히 2014년 상반기부터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던 건설수주(1년 6개월 선행성)가 2015년 하반기 건설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2015년 상반기 2.2%, 하반기 4.0%로 연간 3.1%의 증가율 전망

< 건설투자 추이 및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5.5	1.9	0.4	1.0	2.2 (1.6)	4.0 (4.3)	3.1 (3.0)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5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안은 2014년 10월 전망치.

④ 설비투자 : 하반기에 회복세 미약

○ (현황) 2015년 상반기 설비투자는 수출 감소, 미약한 투자심리 등으로 회복세 미약

- 對중 수출을 포함한 총수출 급감,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한 기업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 약화

< 설비투자 및 주요 변수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p)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연간	1/4	3월	4월
설비투자(국민계정)	-0.8	7.2 (-1.4)	7.7 (1.3)	4.2 (0.2)	4.2 (4.0)	5.8	5.8 (0.2)	-	-
설비투자지수	-0.8	7.5 (-4.0)	6.7 (1.7)	1.5 (-0.9)	5.4 (8.6)	5.2	8.2 (-1.8)	8.1 (-2.7)	2.8 (-0.8)
기계류내수출하지수	-7.6	0.3 (-3.3)	-0.4 (0.9)	2.3 (0.5)	-1.0 (0.6)	0.2	3.1 (0.4)	5.4 (2.7)	1.7 (-2.8)
설비투자조정압력	-0.9	-0.7	-1.1	-0.5	-3.5	-1.5	-2.6	-1.6	-4.1
기업경기지수(BSI)	73	75	71	72	71	71	74	74	78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주 : 1) ()안은 전기대비 증감률. 기계류내수출하지수는 선박제외.
- 2)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생산증가율 - 제조업능력증가율.

○ (전망) 2015년 하반기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 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회복세 미약

- 저금리, 저유가 등의 우호적인 투자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수출 감소, 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이 회복세를 제약
- 2015년 설비투자는 상반기 4.7%, 하반기 5.3%로 연간 5.0%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0.8	7.5	4.2	5.8	4.7 (4.2)	5.3 (6.0)	5.0 (5.1)

자료 : 한국은행.

- 주 : 2015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안은 2014년 10월 전망치.

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하반기에 증가세 확대

- (현황) 2015년 상반기 지재투자는 기업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선제 투자 및 정부 R&D 정책지원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 유지
 - 지재투자는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정부의 민간 R&D 지원정책, 건설·교통 부문의 R&D 투자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 유지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및 주요 변수 추이 >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연간	1/4	3월	4월
지재투자(국민계정)	4.4	7.2 (2.0)	5.6 (-0.1)	4.9 (-0.3)	1.1 (-0.5)	4.6	1.7 (2.3)	-	-
연구개발투자	5.4	9.2 (2.5)	6.6 (-0.1)	5.2 (-0.6)	0.9 (-0.9)	5.4	-	-	-
기타지재투자	1.9	1.6 (0.6)	2.9 (-0.3)	3.9 (0.5)	1.8 (0.8)	2.5	-	-	-
연구개발	6.2	6.0	9.2	6.9	10.5	8.3	3.8	-0.7	-1.5
출판영상통신서비스	2.2	1.6	3.6	2.5	-0.2	1.8	-1.6	1.1	-1.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안은 전기대비 증감률.

- (전망) 2015년 하반기 지재투자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확대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 확대
 - 지재투자는 기업의 선제적인 R&D 투자가 늘어나고,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이 강화되면서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2015년 민간기업의 R&D투자는 전년대비 6.8% 증가한 58.3조 원으로 추정
 - 2015년 지재투자는 상반기 3.5%, 하반기 6.8%로 연간 5.2% 증가할 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6.4	2.9	4.6	3.5 (7.3)	6.8 (7.0)	5.2 (7.1)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5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안은 2014년 10월 전망치.

⑥ 대외거래 : 하반기에 수출 감소세 지속

- (현황) 2015년 상반기 수출은 유가 하락, 중국 성장 둔화 등으로 위축
 - 상반기 수출은 유가 하락,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위축 등으로 감소세 확대

< 경상수지 · 무역수지 및 주요 변수 추이 >

(억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연간	2015년		
	연간	1/4	2/4	3/4	4/4		1/4	4월	5월
경상수지	811	152	242	226	272	892	235	81	-
무역수지	440	52	147	89	183	472	217	85	63
수출 (증감률)	5,596 (2.1)	1,375 (1.6)	1,457 (3.2)	1,418 (3.6)	1,477 (0.9)	5,727 (2.3)	1,335 (-2.9)	462 (-8.0)	424 (-10.9)
수입 (증감률)	5,156 (-0.8)	1,324 (2.0)	1,310 (3.3)	1,328 (5.4)	1,294 (-2.8)	5,255 (1.9)	1,118 (-15.5)	377 (-17.8)	361 (-15.3)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 (전망) 2015년 하반기 수출도 세계 및 중국 경기의 미약한 회복, 원화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 세계 경기 회복세 미약,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지속, 엔화 대비 원화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이 하반기 수출의 리스크 요인
 - 다만 국제 유가 약세로 인한 실질 구매력 향상 등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 효과, 미국과 유로존 경기 회복 등으로 수출 감소폭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 상존
 - 수출은 상반기 -5.9%, 하반기 -1.6% 감소하여 연간 -3.7% 감소 예상

< 경상수지 · 무역수지 추이 및 전망 >

(억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	811	394	498	892	510(320)	500(360)	1,010(680)
무역수지	440	199	273	472	445(192)	365(234)	810(426)
수출 (증감률)	5,596 (2.1)	2,832 (2.4)	2,895 (2.2)	5,727 (2.3)	2,665 (-5.9←4.1)	2,850 (-1.6←4.7)	5,515 (-3.7←4.4)
수입 (증감률)	5,156 (-0.8)	2,633 (2.7)	2,622 (1.2)	5,255 (1.9)	2,220 (-15.7←4.8)	2,485 (-5.2←5.0)	4,705 (-10.5←4.9)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주 : 2015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2015년 ()안은 이전 전망치.

⑦ 고용 : 하반기에 고용 증가세 지속

○ (현황) 2014년 상반기 고용은 장년층·여성 경제활동 증가로 증가세 지속

- 신규취업자는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장년층 및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률 증가세가 지속
 - 다만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률도 동반 상승

< 고용 부문 주요 변수 추이 >

(전년동기대비, 천명,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연간	1/4	4월
신규취업자수	385	729	464	517	421	533	354	216
고용률(15-64)	64.4	64.4	65.6	65.8	65.6	65.3	64.9	65.6
실업률	3.1	4.0	3.7	3.3	3.2	3.5	4.1	3.9

자료 : 통계청.

○ (전망) 2015년 하반기 고용은 노동 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증가세 지속

- 하반기에 고용여건은 노동시장 구조변화, 정부의 일자리대책, 완만한 경기 회복세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정부는 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제 등의 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 신규취업자는 상반기 33.0만 명, 하반기 41.0만명, 연간 37.0만명 증가 예상
 - 15~64세 고용률은 65.5%, 15세 이상 실업률은 3.7% 전망

< 고용 관련 지표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천명, %)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신규취업자수	385	597	469	533	330 (350)	410 (460)	370 (405)
고용률(15-64세)	64.4	65.0	65.7	65.3	65.3 (66.0)	65.6 (66.5)	65.5 (66.2)
실업률	3.1	3.8	3.3	3.5	3.9 (3.4)	3.4 (3.3)	3.7 (3.4)

자료 : 통계청.

주 : 2015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안은 2014년 10월 전망치.

⑧ 물가 : 하반기에 저물가 기조 지속

○ (현황) 2015년 상반기에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 하락, 디플레이션갭 등으로 저물가 상태 지속

- 높은 통화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갭으로 인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 미약,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급측 물가하락 압력 지속 등으로 저물가 추세 지속

< 물가상승률 및 주요 수급요인 추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연간	1/4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	1.3	1.1	1.6	1.4	1.0	1.3	0.6	0.4	0.4	0.5
수입물가(%)	-7.3	-4.1	-7.5	-9.1	-9.5	-7.5	-18.1	-17.1	-17.1	-
통화(M2)(%)	4.6	5.0	5.7	7.2	8.1	8.1	8.5	8.5	-	-

자료 : 한국은행.

○ (전망) 2015년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유가하락에 따른 하방 기저효과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미약한 경기 회복세 등으로 물가 상승폭은 제한적

- 하반기도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저물가 기조가 지속될 전망
 - 다만 유가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요인이 4분기부터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0.5%, 하반기 0.9%로 연간 0.7% 예상

< 소비자물가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1.3	1.4	1.2	1.3	0.5 (2.0)	0.9 (1.9)	0.7 (1.9)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5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은 2014년 10월 전망치.